

# 회 의 록

회의명: 2020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장소: 대학본관 3층 중회의실 및 비대면(ZOOM)회의

일시: 2020년 12월 24일(수요일), 15:00 ~ 16:30

## 1. 참석자: 재적평의원 11명 중 9명 참석

염한웅 의장, 조범진 부의장, 반창일 평의원, 최영주 평의원, 조문호 평의원, 황일두 평의원, 김창기 평의원, 장희권 평의원, 고병철 평의원 (이상 9명)

\* 불참: 노진우 평의원, 이은샘 평의원

\* 배석: 김상욱 기획처장, 오욱균 기획부처장, 기획예산팀 이우용, 김선일, 한소정, 손의락, 백창원, 정원경

## 2. 안건

○ 자문안건: 2021학년도 예산안

○ 기타안건: 인문사회학부 비전임교원 관련 이슈 사항

(대학평의원회 의장에서 접수된 이슈에 대한 경과 설명 및 평의원 의견 요청)

## 3. 주요 내용

○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간사의 성원 보고가 있었음.

- 재적 평의원 11명 중 9명 참석(대면 3, 비대면 6)으로 평의원회 개최를 위한 성원을 충족함.

### [자문안건]

#### 1호: 2021학년도 예산안

○ 2021학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처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하여 평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내년 중점추진사업을 금년에 추진한 사업과 연계하여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음. 특히 내년에 융복합연구분야 육성에 굉장히 투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최영주 평의원)

예산안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발표한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내용이 자료에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듦.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내용은 법인의 전체 수익금 내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매년 우리대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500억원 수준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걱정 하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대학이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에 투

자가 어렵다는 고민해서 시작하였으며, 융복합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과제가 규모도 크고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융복합연구에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음. 융복합 중점연구분야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뿐만아니라 스마트 캠퍼스 분야, AI-X 분야, 에너지소재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금액은 각 분야에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bottom up으로 국가 대형과제를 수주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음. (기획처장)

융합대학원 신설, 에너지소재대학원 개편은 교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캠퍼스 같은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중점분야 선정에 있어 의견취합이 제대로 되었고 예산 배정도 그것에 따라서 되었는지 하는 정당성 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듦.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등이 어떻게 대학 전체에서 중점분야로 되었고 앞으로 예산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음. (조문호 평의원)

자료는 요약해서 작성하다 보니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캠퍼스 분야만 중점분야처럼 이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음. 2020년 초반에 총장님이 여러 학과를 다니면서 우리 대학의 대부분 학과가 포함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4개 분야가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이고 생명, 화학, 화공, 창의IT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음. 또다른 분야는 스마트캠퍼스 분야로 컴공, 산경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나머지 2개 분야는 에너지소재, AI-X 분야임. 총장님은 AI-X 분야, 부총장님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연구처장님은 스마트캠퍼스 분야, 대학원장님은 에너지소재 분야를 맡아서 각각의 교수님들 그룹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공간, 필수 기자재 등에 대한 리스트를 bottom up으로 받은 내용들임. 전체 내용을 여기에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학의 대부분 학과가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 (기획처장)

중점분야 및 융합연구 지원에 기초연구 분야가 빠진것처럼 보임. 그리고 차세대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는데 요즘은 국가 연구비가 굉장히 증액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연구자라고 생각하는 중견교수들은 개인 연구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영주 평의원)

기초연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구관련 학과를 통해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기초연구를 하는 중에도 다른 학과와 공동으로 융합연구를 하면 융합대학원을 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차세대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최소한 3~4년 정도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최영주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잘하고 있는 부교수님들은 보통 연구비를 10억원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학에서 뭘 또 지원하냐 하는데 그 분들과 인터뷰

를 해보면, 예를 들어 연구그룹을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더 키워서 규모가 큰 정부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장 연구비가 내년에 끝나거나 그 다음해에 끝나게 된다면 후속사업을 공격적이고 용기있게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이런 경우에 브릿지펀드로 대학에서 일정금액, 예를 들어 2~3억 정도를 reserve처럼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1년이나 2년 정도는 10명 이상의 연구원을 계속 고용을 할 수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만들게 되었음. (기획처장)

교수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최영주 평의원)

금년에 교수아파트 정책을 포함한 교원주거 문제를 논의하기 교수평의회에서 위원을 추천받 교원주거정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중임. (기획처장)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교원 거주상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황일두 평의원)

내년에 법인 전입금이 대폭 증액이 되는데, 교수아파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듦. (반창일 평의원)

교수평의회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교수님들한테 알리는 게 지금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교수평의회에서 교수님들께 알려야 한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도록 하겠음. (황일두 평의원)

예산 규모의 변동추이와 다른 대학과 비교, 그리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 학교가 앞으로 어떤 목표로 어떻게 새로운 재원을 마련 계획 등이 있는지 궁금함. (고병철 평의원)

수입지출 규모가 금년 3,8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서 연구비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100억원 이상이고 법인이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특별사업비를 120억이상 증가한 부분이 기여를 했다고 봄. 이는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압도적 수준이라 할 수 있음. 다른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50% 정도 되는데 우리대학은 전체 수입의 등록금 비중이 8% 밖에 안되며 법인이 기여하는 부분이 확실히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음. (기획처장)

카이스트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지원받는 규모가 2,000억원 정도이며, 학생수는 우리대학의 2배 정도임. 정부지원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대학의 법인 전입금으로 보면 됨. (의장)

대학이 발전하려면 법인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대학으로 진출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법인 기금은 한정되어 있어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결국 균형예산을 만드는게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수익금 이상의 진출금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도 대학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기획처장)

대학과 법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음.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게 bottom과 top이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많은 교수님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의장)

**기타안건: 인문사회학부 비전임교원 이슈사항**

인문사회학부 비전임교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교내외로 제기하였으나 적절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 이를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어달라는 요청을 의장에게 하였음. 해당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룰지 논의하였으나, 일단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하도록 하여 처리과정을 지켜보기로 함

기록: 기획예산팀 이우용

